

# 민주당 지지율이냐 평화당 조직력이냐

## 6·13 격전지를 가다

### ■목포시장

목포지역 유권자들이 박홍률 시장의 재선을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당 바람에 편승한 김종식 후보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에 따라 선거 승패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장 선거전은 사실상 현직시장인 민주당 평화당의 박홍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식 후보 간 대결로 굳어진 모양새다.

몇 차례 실시된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가 엇치락 뒤치락 혼전을 벌여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팽팽한 대결이 예상된다.

박 후보의 현직 시장 프리미엄 및 조직력과 전국적으로 높은 정당 지지율을 앞세운 민주당 바람을 타고 있는 관록의 김 후보를 놓고 지역 민들의 반응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 것”이라는 분석과 ‘현역 프리미엄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하다.

특히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문재인 바람에도 불구하고, 목포·무안·신안·해남 등 전남 서남권 예서비(非)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 가능성이 있고 목포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지지세가 높다는 점에서 후보 간 대결도 대결이지만, 민주당 대 평화당 간 자존심을 건 팽팽한 세력 싸움에 예상된다.

양 후보 간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면서 지역적 가 일각에서는 투표율이 당락을 좌우할 변수로

### 민주당 김종식 vs 평화 박홍률 대결

여론조사서 엇치락뒤치락 혼전  
투표율이 당락 좌우할 변수로  
서남권 경제통합 vs 국제관광도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목포시 투표율은 60%를 넘지 못했다. 투표율이 유·불리를 따지는 이유는 지지 계층 탓이다. 박 후보는 60대 이상 계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반면 김 후보는 20~30대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다.

지지층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후보 간 우위를 점하기 위한 기싸움도 치열하다. SNS에서 상대의 실정과 약점을 부각시키는 네거티브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목포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윤호상박의 형제 속에 각 후보들은 부동층 집기에 눈고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일자리 경제시장’을 표방한 박홍률 후보는 29일 청호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상대로 “추진 중인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또 ‘민주당과 함께’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종식 후보는 이날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층 표심을 얻기 위해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을 찾았다. 청호시장에서 만난 한길주(63)씨는 “목포는

|  |  |
|--|--|
| 김종식<br>67·민<br>정당인   | 박홍률<br>64·평<br>목포시장                              |
| 재산<br>39억1238만원  | 10억6662만원  |
| 병역필<br>5015만원  | 4102만원   |
| 세금<br>5015만원   | 4102만원   |
| 전과<br>전과 없음  | 전과 없음  |
| 학력<br>서울대 행정대학원  | 한양대 행정대학원 법학석사                                   |
| 주요공약<br>·서남권 경제통합으로 지역 발전<br>·3단계 연안크루즈 관광상품 개발<br>·해양레저스포츠산업 육설 | ·신성장 기업도시 건설<br>·국제해양관광도시 건설<br>·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 건설 |

국회의원에서부터 시장·지방의원들 대다수가 평화당인만큼 민주당 우세를 장담하기 어렵다”면서 “중단 없는 목포발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 입장을 대변해줄 세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하(25)씨는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과 일자리”라며 “일자리 2단계 창출 공약 실현을 위해 청년공약 감시단을 발족시킨 것만 봐도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문재인 바람과 함께 민주당이 대세라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이효성(40)씨는 “집권 여당 출신이 당선돼야 중앙정부 예산을 가져오는 데 유리할 수 있고 행정 전문가 출신이 시장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손덕형(23)씨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시장 선거가 정책이나 인물대결로 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잘하고 있고 집권 여당 후보를

찍어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번 목포시장 선거는 조직력을 앞세운 평화당 박홍률 후보를 민주당 김종식 후보가 당의 높은 지지율을 넘을 수 있으나 최다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김종식 후보는 “목포시는 무늬만 전남 제1의 도시일 뿐, 지금은 끝도 없이 하락했다”며 “목포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 같은 이슈를 통해 민주당 표를 결집하는데 총력을 쏟는다는 전략이다.

박홍률 후보는 해상케이블카 착공, 대양산단 43% 분양, 부채 100억 이상 상환의 성과를 바탕으로 ▲머물고 싶은 국제 관광도시, ▲젊고 활기찬 강소 기업도시, ▲전국제 1수산도시 건설이라는 3대 발전 전략을 집중 홍보하면서 바둑 표심을 높고 있다.

/글·사진= 목포 고규석 기자 yousou@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29일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층을 공략했다.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평화당 박홍률 후보는 29일 청호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 광주시 선관위, 기초단체장 후보자 등 고발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공무원에게 당내 경선 준비자료 및 홍보물을 기획·제작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자 A씨와 기초단체장 후보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시선관위는 또 이들 후보자들의 요구를 받고 선전물을 작성한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C씨(7급)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광역의원인 A씨와 전직 광역의원인 B씨는 C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 활동 계획서와 PPT 발표자료, 모바일 연하장, 선거공보물, 의정보고서, 보도자료 등의 기획·작성을 요구한 혐의다. C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료를 작성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

## 광주시 다중이용시설 레지오넬라균 검사

광주시는 6월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집중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광주시가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 병원, 대형건물 등 다중이용시설 24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레지오넬라균은 냉각탑수, 건물 급수시설,

목욕탕 등의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이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 형태로 존재하다 사람이 들이 마시면 호흡기를 통해 감염된다. 임상증상에 따라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독감형과 기침, 고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폐렴형으로 구분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6·13 선거현장

구청장·군수

### 입택 “선거법 지키고 깨끗한 선거 치를 것”



입택 더불어민주당 동구구청장 후보는 30일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선거운동을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를 것’이라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입 후보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첫 번째 평가로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 후보로 출마한 만큼 좋은 결과로 광주 동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임우진 ‘희망캠프’ 운동원과 선거운동 시작



임우진 무소속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31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개시됨에 따라 ‘희망캠프’ 운동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31일 오전 7시 운천저수지 사거리에서 거리인사 및 우세를 하고, 이어 서구 문화센터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 출정식을 한다.

입 후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잘하고 청렴한 구청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서구발전을 위해 분야별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겠다”고 덧붙였다.

### 구충곤 “신 경제1번지 화순 만들겠다”



구충곤 더불어민주당 화순군수 후보는 30일 백신과 첨단복합의료기 선도하는 ‘신 경제1번지 화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는 이를 위해 “백신과 생물의약품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첨단의료복합타운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화순의 ‘신 경제 지도’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품벨트’ 구축을 선도하고, 생물의약품 산업 시설 집적화로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백신제품과 지원 및 정보기술센터 유치에 비롯해 국립백신면역치료 연구원과 생물의약품 벤처중소기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유치하고, 생물의약품 제2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박우량 “천일염 생산 등급제·보증제 도입”



박우량 무소속 신안군수 후보는 29일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천일염 생산 등급제와 3년 이상 된 천일염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군수 보증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모든 농수산물이 등급제에 따라 가격을 달리하고 있다”면서 “천일염 주요 산지인 신안군부터 등급제를 도입해 전국으로 확대·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등급제를 도입하면 우수 등급을 받은 천일염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낮은 등급을 받은 천일염은 저가 사용될 수 있어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밝은광주안과가 ● 신세계안과로  
7월 1일 이름을 바꿉니다  
8인의 안과전문의(현 의료진 그대로)

**대통령령 제28838호 농업진흥구역**  
(2018년 5월 1일 시행 대폭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가능**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꼬박꼬박 (25년동안 연평균 6,000만원)

▶ 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3,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